

김수영문학관 2021년 상반기 정기 인문학 강연
“김수영문학관과 함께하는 김수영 시인과의 산책”

- 제 2 강 -

강연자 : 유성호 교수 (한양대)

강연주제 : '김수영과 박인환'

김수영과 박인환

유성호(한양대)

1. 박인환에 대한 비평적 수원(水源)으로서의 김수영

올해는 김수영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김수영은 한국문학사에서 신화적 영역을 드리우고 있는 몇몇 대표 사례에 속한다. 그는 백석, 이상, 미당과 더불어 후행 시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런저런 전환기마다 당대적 의미로 소환되는 등 풍요로운 자기 권역을 구축해왔다. 반면 박인환(1926~1956)은 몇몇 낭만적 시편을 쓴 시인으로 남아, 김수영의 영향력이나 재해석 가능성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위상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인환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상을 첨예하게 각인시킨 것은 김수영이었다. 김수영은 박인환이 타계한 후 여러 산문에서 박인환을 몰아붙였는데 다음은 그 실례에 속한다.

복쌈(박일영이라는 화가-인용자 주)은 인환에게 모더니즘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양심과 세상의 허위를 가르쳐주었다. 그는 '마리서사'라는 무대를 꾸미고 연출을 하고 프롬프터까지 해가면서 인환에게 대사를 가르쳐주고 몸소 출연을 할 때에는 제일 낮은 어릿광대의 천역을 맡아가지고 나와서 관중과 배우들에게 동시에 시범을 했다. 인환은 그에게서 시를 얻지 않고 코스춤만 얻었다.
(김수영, 「마리서사」, 1966.)

나는 인환을 가장 경멸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것처럼 재주가 없고 것처럼 시인으로서의 소양이 없고 것처럼 경박하고 것처럼 값싼 유행의 숭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죽었을 때도 나는 장례식예를 일부러 가지 않았다. (중략) 인환! 너는 왜 이런, 신문기사만큼도 못한 것을 시라고 쓰고 갔다지?
(김수영, 「박인환」, 1966.)

박인환이 죽고 나서 바로 쓴 글이 아니라 보다시피 박인환 사후 10년쯤 지난 시점에 씌어진 글들이다. 이례적으로 벌써 오래 전에 고인이 된 친구를 불러내어 문학사적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김수영의 경험적 진술은 후행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자못 감염력 높게 각인되어 박인환을 시종 '경박', '딜레탕티즘', '포즈' 등의 수식어로 표상하게끔 하였다. 물론 김수영은 박인환이 종로에서 경영하던 '마리서사'에서 "박일영 김병욱 같은 좋은 시우(詩友)를 만나게" 되었지만 "인환의 모더니즘은 벌써부터 불신"(「연극하다가 시로 전향」, 1965.)하고 있었다고 줄곧 증언해왔다. 그 믿을 수 없는 모더니스트 박인환은 '시'는커녕 '코스춤'만 내내 보여주다가 사라져간 것이다. 그렇게 김수영은 시에서의 '포즈'를 혐오했고 그 최종

과녁은 당대의 최고 스타였던 박인환이었다. 다음 두 개의 글은, 박인환이 보여준 '현대성'에 대한 믿음과 박인환을 비롯한 전후 모더니스트들이 보여준 실험성에 대한 김수영의 비판이다.

신조 치고 동요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공인되어온 교리 치고 마침내 결함을 노정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시의 모든 작용도 이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변하였으나,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만은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다. (...) 나는 우리가 걸어온 길과 갈 길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분열한 정신을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순수한 본능과 체험을 통해 본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에 실은 작품들을 발표했었다.
(박인환, 「후기」, 『박인환선시집』, 산호장, 1955.)

우리의 현대시가 겪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포오즈를 버리고 사상을 취해야 할 일이다. 포오즈는 시 이전이다. 사상도 시 이전이다. 그러나 포오즈는 시에 신념 있는 일관성을 주지 않지만 사상은 그것을 준다. 우리의 시가 조석으로 동요하는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시의 다양성이나 시의 변화나 시의 실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해야 할 일이다. 다만 그러한 실험이 동요나 방황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성인으로서의 시인의 기저에 신념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누구나 다 아는 소리를 새삼스럽게 되풀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단의 너무나도 많은 현대 시의 실험이 방황에서 와서 방황에서 그치는 포오즈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김수영, 「요동하는 포오즈들」, 1964.)

박인환은 자신의 첫 시집을 내면서 자신은 그동안 여러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신념을 지켜왔고 “순수한 본능과 체험을 통해 본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의 현대성을 줄곧 구가해왔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김수영은 전후 모더니스트들이 보여준 실험이야말로 ‘동요나 방황’에 그쳤고 결국 그것은 사상성을 결한 포즈에 머물렀다고 함으로써 그들이 줄기차게 구현해온 ‘현대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비평적으로 통과하고 완료함으로써 김수영은 결과적으로 ‘신시론’ 동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포즈로서의 현대성’을 넘어 “지성인으로서의 시인의 기저에 신념”을 지킨 시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러저러한 맥락을 귀납할 때 우리는 박인환에 대한 비평적 수원(水源)이 ‘후기 김수영’이 완성되어가는 길목에서 쏟아진 김수영 스스로의 언급에서 비롯하였다는 문학사적 사실에 새삼 이르게 된다.

2. 김수영과 박인환의 카운터 이미지

그렇다면 김수영은 왜 그렇게 박인환을 경멸하고 경원했을까? 박인환은 영화배우를 능가하는 뛰어난 용모를 가진 시인이었다. 당시 배우들과 나란히 명동을 걸어도 여인들 눈길이 그에게 머물렀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이다. 미남형 키가 컸고 무슨 옷을 입어도 멋이 넘쳤다. 성격적으로도 거칠 것이 없었다. 흔한 가락국수 한 그릇도 변변히 못 사먹고 점심을 굶다시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는 '럭키' 담배를 반쯤 피우다가 허공에 던져버리는 사치를 멈추지 않았다. 취기가 오르면 '포엠' 같은 술집에서 계산대 위까지 올라가 춤을 추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김수영은 이 점에서 박인환을 따라갈 수 없었다. 김수영이 어찌다가 노란 스웨터와 세련된 양복을 입고 캡을 쓴 채 큰 눈동자를 두리번거리며 '휘가로' 다방에 앉아 있으면 형사들이 가끔 와서 밖으로 불러내곤 하였는데 그것은 김수영의 인상과 옷차림이 수상하여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 반응에서 두 사람은 현격하게 달랐던 것이다.

박인환은 1948년 스물셋에 진명여고 출신 이정숙과 결혼하였고, 김수영은 1950년 서른에 진명여고와 이화여전을 나온 김현경과 결혼하였다. 박인환과 이정숙은 덕수궁 앞뜰에서 결혼식을 올려 술한 화제를 뿌렸던 반면 김수영과 김현경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돈암동 근처에서 동거에 가까운 살림을 시작했다. 이정숙은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내내 그의 곁을 지켰고, 김현경은 전쟁 중 남편과 헤어져 살았던 아픔이 있다. 한편 개인 시집은 두 사람 모두 한 권을 냈는데 박인환이 『박인환선시집』(산호장, 1955)을 먼저 냈고 김수영은 『달나라의 장난』(춘조사, 1959)을 뒤미처 출간하였다. 이처럼 1921년생 김수영이 1926년생 박인환에게는 다섯 살 터울의 형뻘이었지만 김수영은 박인환보다 결혼은 2년 늦게 첫 시집 상재는 4년 늦게 하였다. 김수영은 언제나 나이 어린 박인환에게 모든 것이 뒤쳐졌던 것이다. 시인으로서의 각광은 물론 세속적 성공에서도 늘 타이밍이 늦었다. 시집 출간기념회만 해도 박인환은 1956년 1월 거의 전문단적 행사로 기념회를 치렀다. 백철의 축사, 현인의 상송 등이 이어지면서 명동 거리를 환희 속에 보냈고, 이날 박인환은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행복한 모습을 줄곧 보였다. 이런 일련의 사정이 김수영에게 박인환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이미 여러 차례 도출된 바 있다.

김수영이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박인환 시를 읽고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낯설다고 하자 박인환은 "이건 네가 포로수용소 안에 있을 동안에 생긴 말이야."라고 독설 반농담 반 하면서 김수영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는 삽화를 엮는다면, 박인환의 날렵함과 재치를 추월할 수 없었던 김수영이 박인환에게 느꼈을 적의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우리는 한때 절친했던 이들이 나중에 가지게 되었던 거리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권역과는 무관한 곳에서 명성을 날리던 박인환에게 가졌던 김수영의 거리감 말이다. 다음 증언을 한번 읽어보자.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 나온 뒤, 박인환은 김수영이나 양병식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던 듯하다. 김수영이나 양병식, 그리고 그들과 친교가 두터웠던 이봉구의 산문에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이후에 그들이 어울렸다는 기록이 없다. 몸이 날랜 박인환은 그들을 떠나 명동과 문단을 헤집고 다녔다.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1, 131면.)

김수영과 박인환이 이처럼 격조해졌다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김수영의 박인환 비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먼저 김수영은 누구보다도 박인환을 잘 알고 있었다. 김수영은 “죽은 인환이가 해방 후에 종로에서 한 2년 동안 책가게를 한 일이 있었다. 그가 자유신문사에 들어간 것이 책가게를 집어친 후였고, 명동에 진출한 것이 경향신문에 들어갔을 무렵부터이었으니까 문단의 어중이 떠중이들은 - 인환이하고 가장 가까운 체하는 친구들까지 - 그의 책가게 시대를 잘 모른다.”(김수영, 『마리서사』, 1966.)라고 말할 정도로 박인환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수영의 기억대로 박인환은 1945년 말에 마리서사를 열고는 1948년초까지 2년여 동안 운영하였다. 하지만 김수영은 그토록 정확한 기억에 이어 “나는 인환의 만년처럼 비뚤은 길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마리서사』)을 하고 있다는 말을 엿어 박인환에 대한 경멸을 멈추지 않았다.

일찍이 해방기에 전위적 모더니스트로서 출발했던 박인환은 자유신문사에 몸담았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무부 치안국에 체포되었다 석방되었고, 1949년 9월에는 조선문학가동맹을 탈퇴하였고, 11월에는 전향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사상적 파동을 겪으면서 역사의 전면에서 퇴행해갔다. 1950년 1월에는 보도연맹에서 주최한 국민예술제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 후 『후반기』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박인환의 문학적 생애는 혹심한 단절기를 맞는다. 전쟁과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는 초기시에서 거칠게나마 보여주었던 사회적 관심을 하나하나 지우고 도회적 센티멘털리즘으로 급격하게 경사해갔던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 변모를 두고 김수영이 ‘코스춤’이라고 비판했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사후적 과장이 개입하기는 했지만 1966년 당시 김수영으로서는 박인환에 대한 이러한 저평가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밖에도 그들의 대조적 성정이나 형편을 보여주는 장면은 수없이 많다. 박인환은 1930년대의 일본 호화판 시집들을 손때가 묻지 않게 유산지나 셀로판지로 싸서 정성껏 보관했으며 잡지 같은 것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그 점에서 그는 책에 관한 퓨리티언이었다. 그 퓨리티언이 정성스레 지은 책사가 바로 마리서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수영은 자기 책이건 남의 책이건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치고 책장을 접어 헌책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력적인 독서력을 보여주었다. 손때와 흔적이야말로 그의 책 읽기의 흔적이요 물리적 결실이었다. 시집 후기도 재미있는데 박인환이 “아내 정숙에게 보낸다.”라고 쓴 데 비해 김수영은 복쌍 박일영의 본명인 “박준경 형에게 드린다.”라고 썼다. 자신들의 연원을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선배’에 둔 그들의 태도 역시 대조적인 셈이다.

또한 우리는 박인환의 아내 사랑이 그야말로 순연하고 균열이 없는 '동일성'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김수영의 아내 사랑은 복합적인 애정과 갈등이 두루 결속했던 '아 이러니'의 그것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시인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토록 선연하게 그려놓았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안에서
나의 위대의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의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
이것이 사랑이냐
넓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 김수영, 「나의 가족」 중에서(1954)

나와 나의 청순한 아내
여름날 순백한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유행품으로 화려한
상가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걸었다

전쟁이 머물고
평온한 지평에서
모두의 단편적인 기억이
비둘기의 날개처럼 솟아나는 틈을 타서
우리는 내성과 회한에의 여행을 떠났다

평범한 수확의 가을
겨울은 백합처럼 향기를 풍기고 온다
죽은 사람들은 싸늘한 흙 속에 묻히고
우리의 가족은 세 사람.
— 박인환, 「세 사람의 가족」 중에서(1955)

김수영은 자신의 “부실한 처”(「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에 대한 애증의 고백을 복합적으로 이어간 데 비해 박인환은 이정숙을 한결같이 “나의 청순한 아내”로 호명하였다. 이정숙은 일찍 죽은 남편 대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명동 생활 현장으로 나와 고생을 했고 김현경은 의상실 경영에 미술 컬렉터 및 디렉터로 줄곧 활동하면서 살았다. 근자에 김현경은 『김수영의 연인』(책읽는오두막, 2013)이라는 책을냄으로써 기억 속의 김수영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현하였다. 아내라는 시선에서 보더라도, 박인환은 자신을 기억해줄 증언의 모멘트가 전혀 없었고, 김수영은 이렇게 아내에 의해 여러 증언이 부가되는 복을 누리고 있다.

3. 현대문학사의 전범으로 남은 김수영의 탄생 100주년

라이벌(rival)이란 ‘강(river)’에 연원을 둔 말로서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치수권이 중요했던 농경 사회에서 강을 사이에 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물이 모두 말라버리면 그네들은 어느새 경쟁을 그치고 물을 대기 위해 협력해야만 했다. 라이벌이란 이렇게 상극과 상생을 함께 하는 존재들을 칭한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에 들어서면 냉혹한 경쟁자가 되는 것이 라이벌인 셈이다. 그 점에서 김수영과 박인환은 글자 그대로의 ‘라이벌’은 아니다. 그 하나는 김수영이 박인환을 꽤 의식한 반면 박인환은 김수영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일한 예외로 우리는 박인환 시 「센티멘털 저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원 발표지인 『신태양』 1954년 7월호에는 제목 아래 ‘洙曠에게’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박인환이 김수영에게 헌정한 시편이라고 판단된다. 부제로만 나타나 있지만 이 시편은 박인환이 ‘말건넌’의 방식으로 김수영을 호명한 유일한 사례이다.

센티멘털 저니-洙曠에게

박 인 환

주말 여행
엽서..... 낙엽
낡은 유행가의 설움에 맞추어
피폐한 소설을 읽던 소녀.

이태백의 달은
울고 떠나고
너는 벽화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는 숙녀.

카프리섬의 원정
파이프의 향기를 날려보내라
이브는 내 마음에 살고
나는 그림자를 잡는다.

세월은 관념
독서는 위장
거저 죽기 싫은 예술가.

오늘이 가고 또 하루가 온들
도시에 분수는 시들고
어제와 지금의 사람은
천상유사를 모른다.

술을 마시면 즐겁고
비가 내리면 서럽고
분별이여 구분이여.

수목은 외롭다
혼자 길을 가는 여자와 같이
정다운 것은 죽고
다리 아래 강은 흐른다.

지금 수목에서 떨어지는 엽서
긴 사연은
구름에 걸린 달 속에 묻히고
우리들은 여행을 떠난다

주말 여행
별 말씀
거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センチ멘털 저니
センチ멘털 저니

(1954.7.)

이 시편에서 우리는 일단 '설움'(「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같은 김수영 시의 키워드에 눈길이 머물게 되고, 시 안에 나오는 '이태백'(「토끼」), '벽화'(「달나라의 장난」), '술'(「미숙한 도적」) 등의 어휘가 괄호 안에 기입한 김수영 텍스트와 겹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김수영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박인환이 유명을 달리 한 후에 김수영은 그야말로 두뼉두뼉 자신을 개진하면서 박인환 없는 12년을 문학사의 거인으로 커갔기 때문이다. 결국 변변한 경쟁도 협업도 없이 박인환은 문학사에서 멈추어버렸고 김수영은 문학사 안을 격류처럼 흘러갔다. 그래서 그들은 상극과 상생을 결속한 의미의 '라이벌'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박인환에 대한 기억을 김수영의 독설에 가까운 부정적 증언에 의해 각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인환이 더 오래 살아 김수영을 증언할 기회가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생애가 뒤바뀌어 김수영이 서른하나까지 박인환이 마흔여덟까지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모두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김수영이 만약 31세에 생을 멈추었다면 그것은 박인환의 시적 성취보다는 훨씬 초라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김수영에게는 박인환이 겪지 못했던 30대와 40대의 시절이 주어졌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박인환의 서른 생애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영에게 60년대가 통째로 주어졌듯이 박인환에게도 4.19혁명의 경험이 주어졌고 60년대의 갱신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마도 그는 지금의 '코스썸' 평가를 훌쩍 넘어서 문학사의 거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닌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수영이 각인한 박인환의 기억에서 벗어나 박인환 스스로 가졌던 가능성과 변형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타깝게 갑작스레 멈추어버린 미완의 텍스트로서의 박인환을 제대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어쨌든 올해는 그러한 아쉬움을 넘어 현대문학사의 뚜렷한 전범으로 남은, 경박과 포즈를 모두 넘어서 김수영의 빛나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